

## 大學生들의 保健實態에 관한 調查 研究

이 주 열

서울대학교 保健大學院

### Attitude and Practice Survey on Health Care Among University Students

Ju Yul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some basic data necessary for more effective health education by questionnaire surve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The questionnaire forms were delivered to 500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during periods from 24 to 28, September, from 7 to 19, October, 1991.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Washing hands after using toilet has relationship to sex (feces :  $\chi^2=51.55$ , urine :  $\chi^2=36.25$ ,  $p<0.05$ ). Index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 2) Tooth brushing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13.28$ ,  $p<0.05$ ). The tendency of practice of male and female was similar.
- 3) Changing of underwear 1~3 days were the highest and it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162.846$ ,  $p<0.05$ ), birth place ( $\chi^2=97.18$ ,  $p<0.05$ ). Index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 4) Bathing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80.92$ ,  $p<0.05$ ), birth place ( $\chi^2=54.18$ ,  $p<0.05$ ), pocket money ( $\chi^2=33.04$ ,  $p<0.05$ ).
- 5) The attitude on occurrence of epidemic disease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70.33$ ,  $p<0.05$ ). A female was more sensitive than male.
- 6) In case of slight disease, a cold, illness from fatigue, the utilization of drug store was higher. The utilization of medical center according to disease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69.84$ ,  $p<0.05$ ).
- 7) Medical behaviorism has relationship to school year ( $\chi^2=35.18$ ,  $p<0.05$ ), sex ( $\chi^2=42.18$ ,  $p<0.05$ ).
- 8) The utilization of school health center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10.73$ ,  $p<0.05$ ), the school year ( $\chi^2=72.09$ ,  $p<0.05$ ), the pocket money ( $\chi^2=38.80$ ,  $p<0.05$ ).
- 9) The experience of health education has relationship to school year ( $\chi^2=10.96$ ,  $p<0.05$ ). No experience is 95.4%.
- 10) The subject for health-medical knowledge is necessary. The need for subject has relationship to sex ( $\chi^2=10.86$ ,  $p<0.05$ ).

**Keywords :** Health care, Health education, Health behavior.

#### I. 緒 論

人間이 健康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要

件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自己健康管理일 것이다. 이에 필요한 情報은 家庭, 學校, 職場, 地域社會등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가장 效

과적인 방법은 學校에서 이루어지는 保健教育이라 할 수 있다. 保健教育은 知識이나 情報의 傳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健康을 지키려는 態度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行動으로 옮기려는 實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學校에서의 保健教育은 教育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保健教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教育對象者의 特性 및 保健行態를 파악하여 적절한 教育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學校保健 組織<sup>1)</sup>이나 法令<sup>2)</sup>에 나타난 바를 分析해 보면 우리나라의 學校保健은 初·中·高等學校가 主對象이고 大學의 學校保健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大學은 自律性에 의하여 運營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理由로 지금까지 學校保健에 관한 대부분의 研究<sup>3)</sup>는 初·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하였다. 學校保健이 初步段階에 있는 우리 現實에서 大學의 學校保健을 論議하는 것이 다소 이를 수 있다. 그러나 1982年 孫<sup>4)</sup>의 調査에 의하면 大學의 學校保健도 初步的 段階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大學에서는 大學生들에게 관련된 保健知識을 傳達하고 疾病을 豫防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思考方式과 態度 및 行動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것<sup>5)</sup>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大學生들의 保健實態 把握이 이루어져야 한다.

保健教育과 관련된 많은 研究들이 健康信念模型<sup>6)</sup>(Health Belief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保健에 관련된 일반적인 大學生들의 態度 및 個人衛生 實踐狀態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大學의 學校保健 活性化 方案 研究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II. 研究方法

### 1. 研究資料

- ① 研究對象은 서울 시내 一部 大學生으로 하였으며 對象學校는 4年制 5個 大學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중 50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 ② 調査期間은 1991年 9月 24일부터 28일까지, 10月 7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總 18日 동안 實施 하였다.
- ③ 調査方法은 준비된 設問紙를 직접 배부한 후 無記名으로 직접 作成케 하여 그 場所에서 回收하였다.
- ④ 總 600부를 배부하여 502부가 回收되어 回收

率은 83.7%였고, 그중 資料로써 사용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500부를 本 研究의 資料로 使用하였다.

### 2. 調査道具

設問紙의 構成은 調査對象者의 保健態度에 影響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項目을 獨立變數로 選定하여 一般的 特性으로 묶었으며, 從屬變數는 保健實態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個人衛生, 保健行態, 保健教育, 保健知識등 크게 4部分으로 나누어 項目을 設定하였다. 이와 같은 方式으로 設問紙를 作成한 후 10名에게 2번의 豫備調査를 實施하여 최종적으로 20個 項目을 選定하였다. 設問 項目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一般的 特性 (6項目)
- ② 個人衛生 實踐 狀態 (5項目)
- ③ 保健醫療에 대한 行態 (4項目)
- ④ 保健教育에 關聯된 事項 (2項目)
- ⑤ 保健知識 (3項目)

### 3. 分析方法

各 項目別로 保健行態를 백분율로 處理 하였고 獨立變數로 選定한 對象集團의 特性에 따른 差異를 檢證하기 위하여  $\chi^2$ -test를 使用하였다. 本 論文에서는 統計處理 結果 獨立變數와 從屬變數間에 有意한 差異를 보인 것만을 使用하여 對象集團間의 差異를 比較하였다.

한편, 個人衛生 實踐狀態와 保健知識에 관련된 項目들은 1989年 金 등<sup>7)</sup>이 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실시한 設問項目과 큰 差異가 없어 本 研究 資料와 比較하여 學歷 및 年齡의 增加에 따른 推移를 살펴볼데 利用하였다.

## III. 研究結果 및 考察

###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으로는 性, 學年, 專攻系列, 居住形態, 成長地, 한달용돈 등으로 區分하였는데 年齡은 學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省略하였다. 性別 構成比는 男子 39.6%, 女子 60.4%로 女子가 다소 많았으며 學年別에서는 1, 2學年이 72.2%로 높은 比率을 차지했고 4學年은 9.6%로 낮았다. 專攻系列에서는 人文系列 58.2%, 自然系列 39.0%, 藝體能系列 2.8% 였고 居住形態는 자기집 거주자가 57.8%로 가장 많았으며 寄宿舍 16.2%, 자취 9.8%였다. 成長地에서는 大都市 57.8%, 中小都市 19.8

表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單位: 名 (%))

性別	男 198(39.6)			女 302(60.4)			計 500(100.0)
學年	1學年 182(36.4)	2學年 179(35.8)	3學年 91(18.2)	4學年 48(9.6)			計 500(100.0)
系列	人文系列 291(58.2)		自然系列 195(39.0)	藝·體能系列 14(2.8)		計 500(100.0)	
居住形態	自家 289(57.8)	친척집 45(9.0)	下宿 21(4.2)	自炊 49(9.8)	寄宿舍 81(16.2)	其他 15(3.0)	計 500(100.0)
成長地	大都市 289(57.8)	中小都市 99(19.8)	郡, 邑 49(9.8)	農村 57(11.4)	漁村 4(0.8)	山村 2(0.4)	計 500(100.0)
한달 용돈	3만원 이하 9(1.8)	3~7만원 90(18.0)	7~10만원 141(28.2)	10~15만원 159(31.8)	15~20만원 64(12.8)	20만원 이상 37(7.4)	計 500(100.0)

%로 都市地域 出身者가 77.6%를 차지했고, 農村地域이 11.4%였다. 한편, 한달용돈은 各 個人의 經濟狀態를 반영한다고 생각해 調查해 본 結果 10~15만원이 31.8%로 가장 많았고 7~10만원 28.2%, 3~7만원 18.0%였고 20만원 이상도 7.4%나 되었다.

2. 個人衛生 實踐狀態

個人衛生 實踐 狀態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方面에 걸쳐 많은 問항을 작성하여 設問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目的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設問 項目을 日常의 生活習慣으로 制限 하였다. 즉 대·소변으로 나누어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치솔질 하기, 속옷 갈아입기, 목욕기간 등 5個 項目으로 調查 하였다. 속옷 갈아입기와 목욕기간의 경우는 여름은 더 자주 일어나고 겨울은 덜 일어나므로 생각하여 4季節 中 봄, 가을을 基準으로 하였다.

(1)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는 獨立變數로 選定한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과 X<sup>2</sup>-test를 한 結果 性別에서만 有意한 差異를(대변: X<sup>2</sup>=51.55, 소변: X<sup>2</sup>=36.25, p<0.05) 보였다.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변의 경우, 女子는 반드시 씻는다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한데 반해 男子의 경우는 반드시 씻는다가 62.1%를 차지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소변의 경우는 男女가 다같이 가끔 씻는다, 반드시 씻는다, 음식물과 관련 있을때만 씻는다, 전혀 씻지 않는다 순으로 順位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順位가 높을 수록 女子가 男子보다 實踐 비율이 높아 女子가 男子보다 대·소변 후 더 자주 손을 씻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9年 金 등의 調查<sup>9)</sup>에 의하면 中學生의 경우 가끔씻는다 49.0%, 꼭씻는다 42.1%였고 高等學生의 경우는 가끔 씻는다 55.1%, 꼭 씻는다 35.1%로 두 集團 모두에서 가끔 씻는다가 가장 높았다. 本 調查에서는 대변의 경우 반드시 씻는다 77.6%, 가끔 씻는다 14.0%였고, 소변은 가끔 씻는다 47.2%, 반드시 씻는다 31.0%로 대·소변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소변의 경우는 대변보다 손씻기가 등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金 등<sup>9)</sup>의 研究가 대·소변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할 수는 없지만 學歷과 年齡이 높아감에 따라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1984年 全國 家庭主婦를 對象으로 한 調查<sup>10)</sup>에 의하면 調查對象者中 農漁村 67.1%, 中小都市 77.3%, 大都市 81.4%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꼭씻는다고 답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家庭主婦의 경우 음식물을 다루고 물에 접근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치솔질 하기

口腔衛生 實踐을 치솔질 하기로 알아본 結果는 表3에 나타나 있는데, 男女間에 有意한 差異를(X<sup>2</sup>=13.28, p<0.05)보였다. 順位에서는 男女間에 큰 差異는 없었으나 男子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 4.5%, 전혀 하지 않는다 1.0%로 女子에 비해 매우 높아 口腔衛生 實踐은 女子가 男子보다 實踐율이 높았다. 이는 女子가 男子보다 保健衛生面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솔질 시기에서는 金 등<sup>9)</sup>의 研究에 의하면 식사 후에 한다가 中學生 44.2%, 高等學生 42.0%로 本 調查와 마찬가지로

表 2.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單位: 名 (%))

項目/性別	男		女		計	
	대변*	소변**	대변	소변	대변	소변
반드시 씻는다	123( 62.1)	39( 19.8)	265( 87.7)	116( 38.4)	388( 77.6)	155( 31.0)
음식물과 관련 될때만	13( 6.6)	28( 14.2)	14( 4.6)	52( 17.1)	27( 5.4)	80( 16.0)
가끔씻는다	51( 25.8)	108( 54.6)	19( 6.3)	127( 42.1)	70( 14.0)	236( 47.2)
전혀 씻지 않는다	9( 4.5)	22( 11.2)	2( 0.7)	6( 1.9)	11( 2.2)	28( 5.6)
무응답	2( 1.0)	0( -)	2( 0.7)	1( 0.5)	4( 0.8)	1( 0.2)
計	198(100.0)	198(100.0)	302(100.0)	302(100.0)	500(100.0)	500(100.0)

\* $\chi^2=51.55$ , df: 4,  $p<0.05$ , \*\* $\chi^2=36.25$ , df: 4,  $p<0.05$ .

表 3. 치솔질 하기

(單位: 名 (%))

項目/性別	男	女	計
식사 전에 한다	31( 15.7)	65( 21.5)	96( 19.2)
식사 후에 한다	118( 59.6)	177( 58.6)	295( 59.0)
잠자기 전에만 한다	15( 7.6)	13( 4.3)	28( 5.6)
수시로 한다	23( 11.6)	43( 14.2)	66( 13.2)
거의 하지 않는다	9( 4.5)	2( 0.7)	11( 2.2)
전혀 하지 않는다	2( 1.0)	2( 0.7)	4( 0.8)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13.28$ , df: 5,  $p<0.05$ .

表 4. 속옷 갈아 입는 期間(봄, 가을을 기준)

(單位: 名 (%))

期間/性別	男	女	計
毎日	11( 5.6)	107( 55.3)	178( 35.6)
2~3日	112( 56.6)	120( 39.7)	232( 46.4)
4~6日	61( 30.8)	13( 4.4)	74( 14.8)
7~10日	7( 3.5)	1( 0.3)	8( 1.6)
11~15日	4( 2.0)	1( 0.3)	5( 1.0)
15日 以上	3( 1.5)	0( -)	3( 0.6)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162.84$ , df: 5,  $p<0.05$ .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속옷 갈아 입기의 경우는 男女間에 有意한 差異를( $\chi^2=162.84$ ,  $p<0.05$ ) 보여 주었는데, 男子의 경우 2~3日이 56.6%, 4~6日 30.8%로 대부분 2~6日 사이에 속옷을 갈아 입는 반면 女子의 경우는 毎日 55.3%, 2~3日 39.7%로 男子보다 期間이 짧았다. 즉 期間이 길어 질수록 男子의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毎日 갈아입는 比率에서는 女子가 男子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金 등<sup>9)</sup>의 調査에 의하면 1週日에 2번 갈아 입는다가 中學生 57.6%, 高等學生 49.9%로 가장 많았는데 本 調査의 毎日과 2~3日이 이 期間에 해당 하므로 大學生은 8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中學生의 경우 부모님의 간섭이 고등학생보다 심했기 때문에 보이며 大學生의 경우 특히 女學生이 자기 몸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인다. 한편, 속옷 갈아입기의 경우 獨立變數中 成長地域과도 有意한 差異를( $\chi^2=97.18$ ,  $p<0.05$ ) 보였는데 都市地域에서 成長한 사람이 農漁村 地域에서 成長한 사람보다 속옷을 더 자주 갈아 입는 것으로 보인다.

(4) 沐浴하기(봄, 가을을 기준)

沐浴하기의 경우, 全體的으로 볼 때 4~7日 44.0%,

가장 높았다. 學校生活 關係로 점심시간에는 이따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식사전, 후에 한다고 答한 대부분은 아침, 저녁식사 前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하루에 2번이상 치솔질을 한다고 볼 경우 中學生을 對象으로 한 朴<sup>11)</sup>의 調査나 國民學生을 對象으로 한 趙,<sup>12)</sup> 申<sup>13)</sup>의 結果보다 높게 나타났다. 研究調査 時期의 差異를 고려해야 겠지만 學歷과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口腔保健 實踐狀態가 增加한다고 볼 수 있다.

(3) 속옷 갈아 입기(봄, 가을을 기준)

表 5. 沐浴期間(봄, 가을을 기준) (單位: 名 (%))

期間/性別	男	女	計
毎日	10( 5.1)	16( 5.3)	26( 5.2)
2~3日	29( 14.6)	85( 28.1)	114( 22.8)
4~7日	66( 33.3)	154( 51.0)	220( 44.0)
8~14日	46( 23.2)	42( 13.9)	88( 17.6)
15~21日	31( 15.6)	5( 1.7)	36( 7.2)
22~30日	9( 4.5)	0( -)	9( 1.8)
30日 以上	7( 3.5)	0( -)	7( 1.4)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80.92$ , df: 6,  $p<0.05$ .

表 6. 傳染病 發生소식을 들었을 경우 態度

(單位: 名 (%))

項目/性別	男	女	計
無關心하다	78( 39.4)	40( 3.2)	118( 23.6)
言論媒體의 報道에 關心을 기울인다	74( 37.4)	113( 37.5)	187( 37.4)
專門書籍을 찾아본다	0( -)	1( 0.3)	1( 0.2)
醫療機關에 問議한다	6( 3.0)	0( -)	6( 1.2)
傳染病의 媒介體가 되는 飲食이나 場所는 피한다	40( 20.2)	148( 49.0)	188( 37.6)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70.33, df: 4, p<0.05.$

2~3日 22.8%, 8~14日 17.6% 順이었고 男女間에는 有意한 差異를( $\chi^2=80.92, p<0.05$ ) 보여 女子의 경우 15日 以上이 1.7%에 불과했으나 男子의 경우는 23.6%나 되었다. 金 등<sup>9)</sup>의 調査에 의하면 1週日에 1번이 中學生 60.9%, 高等學生 49.2%로 가장 많았는데 本 調査는 72.0%로 두 集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沐浴하기의 경우는 獨立變數中 成長地域( $\chi^2=54.18, p<0.05$ ), 經濟水準으로 選定한 한달용돈( $\chi^2=33.04, p<0.05$ )과도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都市地域 出身者와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沐浴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結果는 朴<sup>10)</sup>의 研究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個人衛生에 더욱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 같다.

本 調査에서 나타난 바와 金 등<sup>9)</sup>의 結果를 綜合해 볼때 個人衛生 實踐 狀態中에서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치솔질 하기의 경우는 學歷과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實踐率이 높아졌다. 그러나 목욕회수나 속옷갈아 입기에 있어서는 3集團中에서 高等學生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一般的으로 목욕시 속옷을 갈아 입기 때문에 두 項目이 같은 傾向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沐浴의 경우는 다른 個人衛生 項目과는 달리 많은 時間을 要하는데 高等學生의 경우 大學入試로 인해 공부에 많은 時間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주 沐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속옷 갈아입기와 목욕하기의 경우 成長地域과도 有意한 差異를 보였는데, 이는 農村보다는 都市化된 地域일수록 健康行爲 實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金 등<sup>9)</sup>의 研究에서도 같은 結果가 報告 되고 있다. 한편, 居住形態에 따라서 個人衛生 實踐 특히 화장실 이용후 손씻기, 목욕회수는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設定했지만 本 調査에서는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3. 保健醫療에 대한 行態

(1) 傳染病에 대한 態度

疾病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를 알아 보기위하여 傳染病이 發生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態度를 調査 하였는데 結果는 表6에 나타난 바와 같다. 傳染病의 媒介體가 되는 飲食이나 場所는 피한다 37.6%, 言論媒體의 報道에 關心을 기울인다 37.4%를 보여 대체로 敏感하게 反應을 보인 반면 無關心하다도 23.6%였으며, 性別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chi^2=70.33, p<0.05$ ) 보여 男子의 경우 無關心하다가 39.4%로 女子의 13.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女子가 男子 보다 더 敏感하게 反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女子의 경우는 食物에 敏感했다.

(2) 醫療機關 利用行態

경미한 疾病(감기나 몸살)의 경우 주로 利用하는 醫療機關은 藥局이었으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22.0%나 되었다. 醫療機關 利用行態는 性別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chi^2=69.84, p<0.05$ )를 보였는데 女子의 경우 藥局 72.7%, 一般病院 13.7%, 이용하지 않는다 10.2% 順이었고 男子는 약국 50.6%, 이용하지 않는다 39.9%, 일반병원 4.5% 順이었다. 경미한 疾病의 경우 女子가 男子보다 醫療機關을 더 많이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男女 모두 藥局의 대한 利用도가 높았다(表7 參照). 이런 結果는 金,<sup>14)</sup> 李 등<sup>15)</sup>

表 7. 醫療機關 利用 樣相(경미한 질병)

(單位: 名 (%))

醫療機關/性別	男	女	計
學校保健所	8( 4.0)	5( 1.7)	13( 2.6)
藥局	100( 50.6)	220( 72.7)	320( 64.0)
一般病院	9( 4.5)	41( 13.7)	50( 10.0)
綜合病院	1( 0.5)	3( 1.0)	4( 0.8)
韓醫院	1( 0.5)	2( 0.7)	3( 0.6)
利用하지 않는다	79( 39.9)	31( 10.2)	110( 22.0)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69.84, df: 5, p<0.05.$

表 8.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單位: 名 (%))

	學年*				性別**		
	1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男	女	計
부모님과 상의한다	87( 47.8)	71( 39.8)	35( 38.5)	8( 16.7)	49( 24.7)	152( 50.4)	201( 40.2)
친구와 상의한다	9( 4.9)	11( 6.1)	4( 4.4)	5( 10.4)	13( 6.6)	16( 5.3)	29( 5.8)
찾아본다	1( 0.5)	1( 0.6)	2( 2.2)	3( 6.3)	3( 1.5)	4( 1.3)	7( 1.4)
약국을 이용한다	36( 19.9)	42( 23.5)	30( 32.9)	20( 41.7)	56( 28.3)	72( 23.8)	128( 25.6)
병원을 이용한다	8( 4.4)	7( 3.9)	6( 6.6)	1( 2.1)	8( 4.0)	14( 4.6)	22( 4.4)
심하게 아플때까지 참는다	41( 22.5)	47( 26.3)	14( 15.4)	11( 22.8)	69( 34.9)	44( 14.6)	113( 22.6)
計	182(100.0)	179(100.0)	91(100.0)	48(100.0)	198(100.0)	302(100.0)	500(100.0)

\* $\chi^2=35.18$ , df: 15,  $p<0.05$ , \*\* $\chi^2=42.18$ , df: 5,  $p<0.05$ .

表 9. 1學期 동안 學校保健所 利用回數

(單位: 名 (%))

	學年*				性別**		
	1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男	女	計
1~3번	36( 19.8)	58( 51.3)	30( 33.0)	13( 27.1)	41( 20.7)	96( 31.0)	137( 27.4)
4~8번	1( 0.5)	6( 3.4)	15( 16.5)	7( 14.6)	16( 8.1)	13( 4.3)	29( 5.8)
9~12번	—	—	1( 1.1)	1( 2.1)	1( 0.5)	1( 0.3)	2( 0.4)
수시로 이용한다	4( 2.2)	2( 1.1)	3( 3.3)	5( 10.4)	8( 4.0)	5( 2.0)	14( 2.8)
전혀 이용 하지 않는다	141( 77.5)	113( 63.2)	42( 46.1)	22( 45.8)	132( 66.7)	126( 61.6)	318( 63.6)
計	182(100.0)	179(100.0)	91(100.0)	48(100.0)	198(100.0)	302(100.0)	500(100.0)

\* $\chi^2=72.09$ , df: 12,  $p<0.05$ , \*\* $\chi^2=10.73$ , df: 4,  $p<0.05$ .

의 調査에서도 나타났는데 普遍的으로 경미한 질병의 경우는 醫療機關 中에서 藥局을 가장 많이 利用하는 것으로 보인다. 學校保健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았고 특히 男子보다 女子가 훨씬 낮았다.

(3)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學年別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chi^2=35.18$ ,  $p<0.05$ ) 보였는데, 表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과 상의 한다는 學年이 높을수록 減少하는 趨勢를 보인 반면 책을 찾아 본다는 藥局을 利用 한다는 學年이 높을수록 增加 趨勢를 보였다. 즉 學年이 높을수록 자신의 健康症狀를 스스로 決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性別에 따라서도 有意한 差異를( $\chi^2=42.18$ ,  $p<0.05$ ) 보였는데 女子의 경우는 부모님과 상의한다가 50.4%로 男子보다 훨씬 높았다. 男子의 경우는 심하게 아플때까지 참는다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醫療機關 利用行態에서 나타난 경미한 疾病의 경우 醫療機關을 利用하지 않는다 39.9%와 같은 傾向을 보였다. 즉 의료서비스 利用行態가 男子보다 女子가 더 빈번하다는 既存 研究結果와 一致하였다.

(4) 學校保健所 利用實態

大學의 學校保健管理를 위한 組織은 그 管理施設의 規模나 名稱에 있어 多樣하여 保健所, 保健診療所, 醫務室, 養護室, 保健室과 他機關과 併合되어 一部機能만 담당하는 정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sup>17)</sup> 本 調査에서는 이런 多樣한 保健管理 組織을 하나의 名稱으로 통일하여 保健所로 하였다. 學生들의 學校保健所 利用實態를 알아보기 위하여 1학기 동안 몇번 정도 保健所를 利用 하는지를 調査해 보았는데 利用回數는 學年( $\chi^2=72.09$ ,  $p<0.05$ ), 性別( $\chi^2=10.73$ ,  $p<0.05$ ), 한달용돈( $\chi^2=38.80$ ,  $p<0.05$ ) 등과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表9 參照). 그러나 保健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63.6%로 높게 나타났고 學年이 높아질수록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學生數가 減少하는 傾向을 보였으며 利低學年 보다는 高學年 이 더 자주 利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孫<sup>6)</sup>의 調査에 의하면 研究對象으로 선택한 30個 綜合大學中 83.3%가 每年 身體檢査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結果로 볼 때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정기적인 身體檢査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

表 10. 保健教育 經驗 有無 (單位: 名 (%))

項目/學年	1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計
있다	2 ( 1.1)	9 ( 5.0)	7 ( 7.7)	5 ( 10.4)	23 ( 4.6)
없다	180 ( 98.9)	170 ( 95.0)	84 ( 92.3)	43 ( 89.6)	477 ( 95.4)
計	182 (100.0)	179 (100.0)	91 (100.0)	48 (100.0)	500 (100.0)

$\chi^2=10.96, df: 3, p<0.05.$

表 11. 保健醫療講座 受講 計劃 (單位: 名 (%))

項目/性別	男	女	計
반드시 수강 하겠다	14( 7.0)	17( 5.6)	31( 6.2)
여건이 되면 수강 하겠다	130( 65.7)	234( 77.5)	364( 72.8)
수강 않겠다	52( 26.3)	48( 15.9)	100( 20.0)
무응답	2( 1.0)	3( 1.0)	5( 1.0)
計	198(100.0)	302(100.0)	500(100.0)

$\chi^2=10.86, df: 3, p<0.05.$

으로 볼 수 있다.

4. 保健教育

(1) 保健教育 經驗

保健教育이란 健康에 관한 知識을 教育이란 節次를 통해 傳達함으로써 個人 또는 地域社會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行動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sup>18)</sup> 따라서 保健教育의 意味는 健康에 관한 知識의 傳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思考, 態度 및 行爲 自體에 變化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sup>19)</sup>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에 入學한 이후 保健教育 經驗에 대한 調查를 한 結果 95.4%가 保健教育 經驗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chi^2=10.96, p<0.05$ ) 보여 주었는데 學년이 높을수록 保健教育 經驗率이 增加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學年 때까지 90%가 保健教育을 받아본 經驗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保健教育의 不在를 알 수 있다. 孫<sup>9)</sup>의 調查에 의하면 保健教育和 關聯된 教養講座를 개설한 大學은 19.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保健醫療 講座 受講計劃

保健教育和 關聯시켜 앞으로 保健醫療 教養講座가 개설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質問에 대해(表11 參照) 性別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chi^2=10.86, p<0.05$ ) 보였다. 대부분 受講하겠다고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반면 受講 않겠다고 否定的인 態度도 20.0%나 되었다. 男子보다는 女子가 保健醫療 教養講座 受講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保健知識

保健에 대한 態度 및 實踐 水準은 保健知識과 相關性이 높다는 報告<sup>20)</sup>가 있어 保健에 대한 知識程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法定傳染病에 속하는 A형 肝炎과 結核의 전염원을 選定하였고 性知識을 알아보기 위하여 落胎可能 期間을 質問하였다(表12 參照). 本 調查에서 選定한 項目으로 保健知識의 程度를 評價하기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다만 本 資料는 保健教育의 必要性和 保健實踐 水準을 가늠해 볼 수 있는 根據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1) A형 肝炎原

A형 肝炎의 傳染原인 食物을 맞춘 경우는 男子가 43.9%, 女子가 64.2%로 女子가 다소 높았다. 거의 비슷한 設問에 대해 金 등<sup>9)</sup>의 調查에 의하면 中學生 48.8%, 高等學生 53.9%로 本 調查의 56.2%보다 낮게 나타났다. 學歷이 增加함에 따라 保健知識이 增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4년 南 등<sup>10)</sup>이 全國民을 對象으로 한 調查에서는 男子 39.8%, 女子 23.5%로 있었는데, 金 등<sup>9)</sup>의 調查나 本 調查보다 낮은 것은 두 調查가 學生集團을 對象으로 한 것과는 달리 一般人을 對象으로 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동안 流行性 肝炎에 대한 弘報教育이 계속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結核의 傳染原

結核의 경우 正答인 公기와 食物을 맞춘 경우는 男子 61.6%, 女子 68.2%였다. 中學生의 경우 28.4%, 高等學生 28.8% 보다 높았고 南 등<sup>10)</sup>의 調查에 나타난 全國 家庭主婦의 正答率 37.7% 보다도 훨씬 높았는데 이는 本 調查의 경우 正答中 公기와 食物이 各各의 項目으로 設定 되어 있었고 둘중 하나만 맞추어도 正答으로 처리 했기 때문에 다른 調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性知識

性知識과 關聯된 落胎 可能 期間에 대한 質問은 44.6%로 正答率이 낮았다. 性別에 있어서는 女子가 男子보다 正答率이 낮았다. 高等學校 女學生을 對象으로 性知識 程度를 測定한 김<sup>21)</sup>의 研究에 의하면 家族計劃問項 57.1%, 性交와 妊娠 43.1%, 流產 46.4%의 正答率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本 調查의 正答率이나 큰 差異가 없었다. 性에 관한 知識 및 態度의 습득원이 주로 正食인가 되지 않거나 저속한

表 12. 保健知識에 관한 項目

性別/項目	男子		女子		계	
	정답자	정답률	정답자	정답률	정답자	정답률
A형 간염의 전염원	87	43.9	194	64.2	281	56.2
결핵의 전염원	122	61.6	206	68.2	328	65.6
낙태 가능 기간	92	46.5	131	43.4	223	44.6

잡지를 비롯하여 동료, 친구로부터 정확하지 못한 구전적 情報에 依存하고 있음을<sup>22)</sup> 고려할 때에 學歷의 增加는 性知識의 增加에 큰 影響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V. 要約 및 結論

人間이 健康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家庭에서 부터 시작해서 平生토록 保健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保健教育은 知識이나 情報의 傳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健康을 지키려는 態度가 갖추어져야 하며 行動으로 옮기려는 實踐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습성의 조성이나 行動의 變化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保健教育의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個人衛生 生活習慣에서부터 保健醫療에 관련된 基礎知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對象集團에 대한 蓄積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大學의 學校保健 活性化 方案 研究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大學生들의 保健實態를 調査 하였는데 그 研究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는 소변의 경우는 대변보다 손씻기가 등한시 되고 있었고, 女子가 男子보다 대·소변 후 더 자주 손을 씻는 傾向이 있었다.
- 2) 치솔질하기는 식사 후에 한다가 59.0%로 가장 많았고 치솔질 하지 않는 경향은 男子가 훨씬 높았다. 그 이외의 項目에 대하여는 男女間에 큰 差異가 없었다.
- 3) 속옷 갈아입기는 1~3일 사이가 가장 많았고 女子가 男子보다 더 자주 갈아입는 경향을 보였다. 成長地域과도 有意한 差異를 보였는데 都市地域에서 成長한 사람이 農漁村 地域에서 成長한 사람보다 속옷을 더 자주 갈아입는 것으로 보인다.
- 4) 목욕하기는 4~7일 이 44.0%로 가장 많았고

性別, 成長地域, 한달 용돈과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 5) 傳染病이 發生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 女子가 더 민감하게 反應하고 있었으며 男子의 경우는 무관심 하다가 39.4%로 높았다.
- 6) 경미한 질병(감기, 몸살)의 경우는 藥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醫療利用機關 樣相은 男女間에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 7)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醫療行態는 高學年일수록 부모님과 상의하는 比率은 減少한 반면 女子의 경우는 부모님과 상의한다가 50.4%로 가장 높았고 男子는 심하게 아플때까지 참는다가 34.9%로 가장 높았다.
- 8) 學校保健所의 利用回數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63.6%를 차지했고 男子보다 女子가 低學年보다 高學年이 더 자주 利用하고 있었다.
- 9) 大學에 入學한 이후 95.4%가 保健教育을 받은 經驗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學年에 따라 유익한 차이가 있었다.
- 10) 앞으로 保健醫療 講座가 開設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 79.0%는 受講하겠다는 肯定的인 태도를 보였고 男子보다 女子가 더 保健醫療 教養講座 受講을 원하고 있었다.
- 11) 보건지식과 관련된 3개 問項의 正答率은 극히 저조하여 保健教育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1. 徐聖濟：우리나라 學校保健 事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pp. 25-31, 1985.
2. 文敎部：學校保健法. 文敎法典.
3. 文敎部：學校保健法施行令. 文敎法典.
4. 文敎部：學校保健法施行規則. 文敎法典.
5. 學校保健學會誌, 1-5(2)를 參考할 것.
6. 孫武仁：우리나라 大學의 學校保健 管理에 관한 實態調査.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2.
7. 정규철：지역사회보건학. 수문사, p. 549, 1982.



8. Becker, M. :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Charles B. Slack, Inc., New Jersey, pp. 27-59, 1974.
9. 金亨南, 南喆鉉 : 嶺南地域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保健意識 行態調查 研究. 學校保健學會誌, 4(2), 119-135, 1991.
10. 南喆鉉 外 : 國民保健意識 行態調查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11. 朴玉洙 : 中學生의 健康行爲 調查研究.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 14, 1984.
12. 趙素英 : 서울 시내 國民學校의 口腔保健教育 效果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3.
13. 申寬浩 : 個人衛生의 知識 및 實踐에 관한 調查研究.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71.
14. 김강식 :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 의식에 관한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p. 28-28, 1981.
15. 李州烈 外 : 춘성군 지역 사회 보건실습보고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p. 100-101, 1991.
16. Morgan, M. : Marital Status, Health, Illness and Service Us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4, 633-643, 1980.
17. 權炳任 : 우리나라 大學生 保健管理 實態에 관한 調查. 이화여자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78.
18. Grouth Ruth, E. : Health Teaching in School. W. B. Saunders Co., pp. 1-25, 1968.
19. Willgoose, Carl E. : Health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W. B. Saunders Co., pp. 24-25 (1969).
20. 南喆鉉 : 韓國婦人의 保健知識, 態度 및 實態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分析.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84.
21. 金은희 : 서울지역 일부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4(2), 100-118, 1991.
22. 金 명 : 대도시 일부 고등학교 학생의 성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9(3), 163-170, 1980.